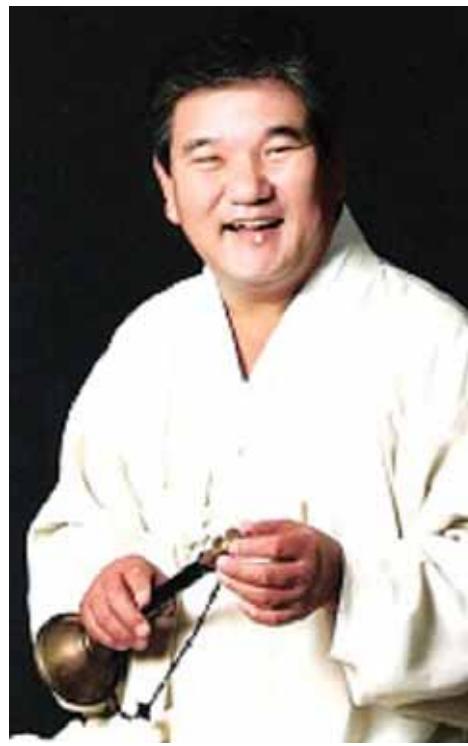


‘피리의 명인’ 김광복 교수 음악인생 50년



오늘 문예회관서 무료음악회…연출·지휘 총망라 감성공연 선사

피리와 태평소의 명인 전남대 국악과 김광복 교수가 50년 음악인생을 갈무리한다.

7살 때 국악인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멋모르고 배웠던 피리 하나로 인생을 살아온 그의 음악세계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김광복 교수 예술인생 50년 기념 음악회가 31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독주회는 민요 연곡, 시나위 연주, 재즈 와의 협연과 함께 연출·지휘 등 다방면을 통해 드러난 뛰어난 음악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아시아민속음악단과 빛고을 국악관현악단 등 그의 독주회를 축하하는 국악명인들 및 특별 출연이 더해져 우리 국악의 풍부한 선율을 함께 전한다.

김 교수는 어려서부터 피리·대금·해금을 자

유자재로 연주했고, 김덕수와 서울 예술 종·고등학교를 나와 중앙대 예술대학 음악과에 진학해 작곡, 지휘, 서양음악 이론까지 두루 섭렵했다.

국립국악원에서 연주생활을 하다 1985년 전남대 예술대학 국악과에 재직하면서 전남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해 국악의 대중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1989년 5월 광주민중항쟁을 기리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 ‘5·18 음악제’가 김 교수의 음악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광주 영력을 위해 ‘민중진흥곡’을 작곡해 남도예술회관에서 첫 공연을 했다. 3년간 준비한 이 곡은 진도 씹깃굿을 모태로 죽은 자의 넋을 달래고, 산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김남주·김준태 시인이 시를 낭송했다.

김 교수는 최근에는 재즈와 국악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과 미국 음악인으로 구성된 재즈 밴드 ‘테이스트 오브 재즈’(Taste of jazz)와 협연을 했다. 연주자 중심의 시나위와 재즈의 즉흥성에서 공통점을 찾은 그는 한국식 재즈 음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에 조성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위해 (사)아시아 민족음악교류협회 회장을 맡아 아시아 민족 음악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김광복 교수는 KBS국악대상, 광주시민예술상, 임방울 국악대상 등을 수상했고 국가지정중요무형문화재 구례향제줄풀류 전수조교, 빛고을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사단법인 아시아 민족음악교류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김일환(주)복지방송 대표이사 취임



(주)복지방송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일환(54·사진) KNS 뉴스통신사 보도전문위원이 선임됐다. 김사장은 내달 1일에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한다.

김사장은 미리비포한 취임사에서 “나눔과 배려를 함께하는 방송을 모토로 장애인 및 노인, 저소득 가정 등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인권복지미디어 매체로 발전시키겠다”며 또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감동프로그램을 제작,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 방송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복지방송은 김사장 선임과 함께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민경천 사업본부장을 복지방송 총괄본부장 및 계열신문사 대표이사 겸집인에, 이승규 KNS뉴스통신사 광주전남광역법인 대표이사로 계열신문사 대표이사 겸성보도인으로 각각 선임했다.

체종순 광산구의원 ‘메니페스토약속대상’



광주 광산구 체종순 의원(예산결선위원장·사진)이 최근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12 메니페스토약속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체종순 의원은 ‘수완지구 풍경정전 편백나무 건강 숲길 테마공원 조성’ ‘수완지구 버스노선 확대 추진’ ‘수완지구 버스 종양차로제 폐지’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광야이행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시인 백무산·소설가 정영문씨 ‘대산문학상’

황현산씨 평론상·고혜선씨 번역상

올해 제20회 대산문학상에 백무산의 시집 ‘그 모든 가장자리’와 정영문의 소설 ‘여편 작위의 세계’가 선정됐다고 대산문화재단이 30일 밝혔다.

평론 부문에선 황현산의 ‘잘 표현된 불행’이, 번역 부문에선 고혜선과 프란시스코 카란사가



백무산씨

정영문씨



황현산씨

고혜선씨

스페인어로 공연한 황순원 소설 ‘나무들 비탈에서 서다가’ 상을 받았고 희곡 부문은 당선자가 없었다.

대산문화재단은 ‘백무산의 시집은 노동자 문학으로부터 삶에 대한 균원적 의문으로 시 세계의 폭이 더 확장돼 새로운 시적 성취를 이뤘고, 정영문의 소설은 비서사 소설의 진경을 보여주며 새

로운 경지와 발화 지점에 이르렀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상금은 시·소설 부문 5000만원, 평론·번역 부문 3000만원이며 시와 소설 수상작은 해외에도 번역 출판된다.

시상식은 다음달 29일 대산문화재단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겸해 열린다.

/연뉴스

이상조 여수광양 항만공사장 경영교육학회 최고 경영자상



이상조(사진) 여수광양 항만공사(YGPA) 사장이 최근 영남대에서 열린 한국경영교육학회(회장 허익구) ‘2012년 추계 국제 학술대회’에서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했다.

이 사장은 우리나라 제2의 수출 전진기지인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리하는 YGPA 초대 사장으로 임명받아 최고경영자로서 국가경제 발전 및 항만 활성화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3~2단계의 다목적 부두 활용, ‘노-스트라이크(No-Strike) 항만’ 브랜드화 및 3무(무분쟁·무재해·무결점) 실천 등 노사안정을 통한 무분규 항만 실현, 찾아가는 CEO마케팅을 통한 신규화물 창출노력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조기개통, 국제 물류센터 건립, 항만 최초 태양광발전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경영효율화에 이바지 한 점도 높게 인정받았다.

이 사장은 “교육이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며 “한국경영교육학회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부처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시·도 관광협 회장단 초청 광주관광 팜투어

광주시관광협회

광주시관광협회(회장 김홍주)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전국 시·도 관광 협회 회장단을 초청 광주관광 팜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팜투어에는 남상만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을 비롯하여 16개 시도 관광협회장, 연규진 한국관광협회 홍보대사 부부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현황과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현황 등을 살펴보고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광주비엔날레와 양립동역사문화마을 등 광주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김홍주 회장은 “광주관광의 경쟁력 확보와 국제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인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시설운영팀장 김기태 ▲마케팅팀장 박준영 ▲전시팀장 박형면 ▲전자사업팀장 박찬준

내방

▲박준호(동신대학교 공연전시기획학과 교수)씨

씨 모친상=발인 11월 2일(금) 조선 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옥례씨 별세 김일우(조대 명예교수)·영주·복란·경란·옥성씨

모친상=발인 11월 1일(목) 조선대 병원 장례식장 7분향소 062-231-8907.

▲정정자씨 별세 조영천·홍천·종찬·영희씨 모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장용대씨 별세 소현·소희·소빈·소정씨 부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3.

▲김재섭씨 별세 수영·양자·광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희·광순·은희씨 부친상=발인 11월 1일(목)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김정숙씨 모친상=발인 31일(수)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